

動 向 分 析

要 約

▷ 주요 목차 ◁

- I. 勞 動 市 場
- II. 勞 使 關 係

I. 勞 動 市 場

○ 雇 傭

1993년 2/4분기
 경제성장률 4.2%
 제조업 성장률 2.2%
 소비자물가상승률 4.7%

1993년 2/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고정투자 및 내수부진 등으로 전년동기의 7.0%보다 2.8%포인트 하락한 4.2%를 시현하였다. 특히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2%로서 지난 동기의 8.6% 성장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중화학공업은 자동차, 철강, 선박 및 기계류 등의 수출호조로 5.5% 성장한 반면 음식료, 섬유, 의복, 신발 등 경공업부문은 내수둔화와 국제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5.5%를 기록하여 산업구조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1993년 2/4분기에 도매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7%, 소비자물가는 4.7%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동기보다 각각 0.8%포인트, 2.5%포인트 하락한 결과로 안정성장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감속성장의 결과로 1993년 후반 이후에는 전반적인 인력부족이 완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여 노사관계에서 고용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2/4분기
경제활동인구 1.3% 증가
취업자 0.7% 증가
실업률 2.8%

1993년 2/4분기에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반면, 취업자는 0.7% 증가에 그친 결과 실업률은 2.8%로 나타나 지난 동기대비 0.6%포인트 상승하였다. 1993년 2/4분기중 노동시장은 경제의 전반적인 감속성장에 따라 노동수요증가가 둔화되어 실업자가 전년동기 29.7%나 증가되어 고용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1993년 2/4분기에는 경제활동인구의 구성상 여성화, 고령화 추세가 반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대비 3.8% 증가하여 증가율이 전년동기의 1.7%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는 주로 경공업부문에서의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화에 따른 이 연령계층의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 때문이다. 25~54세의 핵심노동력 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에 비해 2.8% 증가하여 안정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연령계층의 경제활동 증가는 남성이 주도하고 있으며 여성은 단기적 등락이 심해 부차적 노동력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6%로서 지난 동기보다 오히려 0.3%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하여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가 반전되었다. 이는 부차적인 노동력을 형성하는 이 연령계층에서 경공업 및 건설부문의 경기부진으로 실망노동자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였기 때문이다.

1993년 2/4분기의 연령별 실업자 동향을 보면 15~19세가 10.9%, 20~24세가 8.9%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6%포인트, 2.3%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특히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취업애로는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의 확충이나 청소년 직업안정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직업안정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1993년 2/4분기
산업별 취업자
제조업 4.5% 감소
건설업 1.0% 증가
서비스업 6.3% 증가

1993년 2/4분기의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1991년 4/4분기에 시작된 취업자 절대수 감소추세가 더욱 확산되어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여 전산업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5%로 하락하였다. 이는 주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감소의 결과이다. 한편 건설업은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효과로 전년도의 고용증가 추세가 크게 안정되어 전년동기대비 1.0% 증가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은 내수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전년대비 6.3%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증가율 5.9%보다 약간 높아졌으나 전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의로의 노동이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 2/4분기
직종별 취업자
생산직 4.9% 감소
서비스직 8.3% 증가

1993년 2/4분기의 직종대분류 취업자 동향을 보면 민간 소비지출이 안정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판매·서비스직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사무직 역시 전년동기대비 각각 5.7%, 7.5% 증가하여 우리경제의 서비스화 및 소프트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직의 경우 제조업 및 건설업의 성장을 둔화를 반영하여 전년동기의 1.1% 감소에 이어 4.9%나 감소하여 생산직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993년 2/4분기
고용형태
상시고 2.0% 증가
일고 4.3% 감소
비임금근로자 0.2% 증가

1993년 2/4분기의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상시고는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반면, 일고는 4.3%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고용안정률이 1990년 2/4분기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이는 경기부진으로 한계근로자 계층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시고는 전년동기보다 증가율이 1.6%포인트 낮아진 것은 제조업 생산직 감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비농부문의 비임금근로자 증가율 5.5%는 임금근로자 증가율의 세배 수준으로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빠른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 賃 金

1993년 2/4분기
정액급여 656천원
초과급여 91천원
특별급여 177천원
임금총액 923천원

1993년 2/4분기중 월평균임금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3.1% 상승한 923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동기의 상승률 14.4% 보다 1.3%포인트 감소한 결과이다.

한편 초과급여는 전년동기대비 5.6% 증가에 머물러 전년동기의 13.9% 상승에 비해 매우 낮은 상승률을 시현하였다. 초과급여상승률이 평균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경기부진으로 초과근로 수요가 감소되었고, 또한 고임금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용자는 초과근로를 되도록 억제하는 한편 생산직 근로자 역시 소득상승효과로 초과근로를 기피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급여는 전년동기대비 21.7% 상승하여 전체 임금상승률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기업에서 6월까지 임금교섭이 마무리되면서 성과배분이나 각종 장려금 등의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3년 2/4분기
산업별 임금
제조업 11.8% 상승
건설업 11.7% 상승
사회·개인서비스업
16.3% 상승

1993년 2/4분기중 산업대분류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제조업은 전년동기의 14.4%에서 2.6%포인트 하락한 11.8%를 시현하여 증가추세가 둔화되었다. 건설업 임금상승률은 전년동기보다 6.0%포인트나 낮아진 11.7%로서 1991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진정대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전년동기보다 1.8% 상승한 16.3%를 시현하여 전체 임금상승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2/4분기
제조업 직종별 임금
생산직 12.2% 상승
사무직 10.7% 상승

1993년 2/4분기의 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은 생산직이 749천원, 사무직이 1,004천원이고 상승률은 각각 12.2%, 10.7%를 시현하였고 생산직/사무직 임금비율은 74.6%로서 전년동기의 상대임금비율 73.6%에 비해 직종간 상대임금격차의 완화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생산직의 인력부족현상에 따른 노동시장적 요인과 노동운동이 생산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사관계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2/4분기
사업체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1993년 2/4분기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10~29인 규모의 영세기업은 14.4%이고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16.1%로 나타나 1992년 2/4분기 이후 지속된 규모간 임금격차 완화 추세가 반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500인 이상 고임금 대규모기업에서 일시금형태의 특별급여가 전년동기대비 30%나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

○ 勞動生産性

1993년 1/4분기
부가가치노동생산성
5.0% 증가

1993년 1/4분기의 불변가격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 증가는 전반적인 생산부진으로 5.0%에 머물러 전년동기의 증가율 11.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시현하였다. 이는 동기의 실질임금상승률 7.7%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특히 경공업부문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勤勞時間

1993년 2/4분기
월근로시간
전산업 209.2시간
정상근로 0.6% 감소
초과근로 3.0% 감소

1993년 2/4분기중 월평균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9시간 감소하였다. 근로시간 감소는 대부분 초과근로시간의 3.0% 감소에 기인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부진, 수요측면의 대체효과 및 공급측면의 소득효과를 아울러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90년 10월 이후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전산업으로 과급되고 있고 감속성장으로 고용을 늘리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당근로시간은 전산업 평균이 48.2시간, 제조업은 49.5시간을 기록하고 있다.